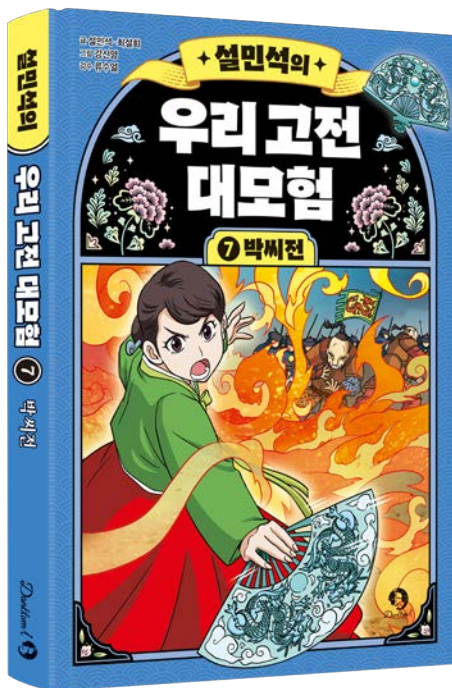


단꿈아이 독서지도안



설민석의 우리 고전 대모험 - ⑦ 박씨전
글 설민석·최설희 | 그림 강신영 | 감수 류수열



- 이 책은 <설민석의 우리 고전 대모험> 7권을 활용하여 제작한 비매품입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주)단꿈아이에 있습니다.

©Dankkumi Corp.



〈박씨전〉을 한번에 정리해 보요!

1

시백과 박씨의 혼인



득춘

박 처사의 딸이라면
저도 좋습니다.

한양 사는 이득춘이 금강산 박
처사의 청혼을 받아들여 자녀
들을 혼인시키기로 해요.

4

절세가인이 되다!



박 처사

딸아, 이제 허물을 벗거라.

박 처사가 찾아와 딸의 허물을
벗게 해요. 허물을 벗은 박씨는
절세가인이 되어요.

2

구박받는 박씨



못생긴 외모 때문에 구박받던
박씨가 뒤뜰에 피화당을 짓고
몸종 계화와 단둘이 지내요.

3

재주 많은 박씨



박씨는 하룻밤 만에 관복을 짓
고 시백을 장원 급제하게 돕는
등 신기한 재주를 부려요.



5

후회하는 시백



시백

부디 용서해 주시오.

허물 벗은 박씨가 절세가인이 되자 시백은 후회하고, 박씨는 너그럽게 시백을 용서해요.

6

자객을 제압하다!



청나라 자객이 변장하여 찾아와 박씨를 죽이려 들지만, 박씨가 미리 알고 제압해요.

8

적을 무찌른다!



박씨

감히 조선을 넘보다니!

피화당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던 박씨가 도술을 부려 청나라 장군을 혼쭐내요.

7

청나라의 침략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해 임금님은 항복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요.



교수님! <박씨전>은 어떤 책이에요?

◆ 재주와 용기로 적군을 혼쭐내는 여성 영웅의 이야기, <박씨전> ◆

지은이 알려지지 않음

시대적 배경 조선 후기

지은 시기 조선 후기

갈래 군담 소설

주제 박씨의 놀라운 재주와 영웅적 기상

<박씨전>은 여성 영웅인 박씨의 이야기를 다룬 군담 소설이에요. 군담 소설이란 전쟁을 배경으로 영웅인 주인공이 활약하는 내용의 고전 소설을 말해요. 뒤뜰에 작은 집을 짓고 숨어 지내던 못생긴 박씨가 허물을 벗은 후에는 청나라 자객을 혼내 주고, 나아가 조선을 침략한 청나라 장군까지 벌하는 이야기가 바로 <박씨전>이지요.

<박씨전>의 배경은 실제 사건인 ‘병자호란’이에요. 비록 현실에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고 크나큰 고통을 겪었지만, 소설로나마 영웅 박씨의 활약을 통해 청나라에 굴욕당한 것을 심리적으로 보상받고 동시에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지요.

<박씨전>처럼 여성이 영웅이 되어
주체적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해요.

조선 후기, 언문 소설의 등장과 여성 독자층의 확대에 힘입어
유행한 여성 영웅 소설은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 주고 있어요.



▲ 박씨전

❁ 〈박씨전〉의 배경, 병자호란

병자호란은 1636년, 즉 병자년에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해 온 난리예요. 청나라 군대가 공격해 오자, 조선의 임금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바쁘게 피란을 갔어요. 그러나 결국 45일 만에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세 번 절하기를 세 차례 반복하여, 총 아홉 번 절을 하며 굴욕적으로 항복했지요. 이로써 청나라와 조선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되었고, 청나라는 조선의 왕자 둘을 포함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처럼 병자호란은 우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 이 책을 함께 읽는 부모님·선생님께 ◆

〈박씨전〉은 일개 여인인 박씨의 활약으로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고 조선의 자존심을 회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씨전〉은 명분 싸움에 빠져 백성들을 전란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잘난 남성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이라 하겠습니다.

〈박씨전〉은 사람을 볼 때 신체적인 조건보다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액운을 당해서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외모의 박씨가 일종의 시험을 거쳐 절세가인으로 거듭나는 장면은, 불품없는 말이 준마로 성장하는 장면과 겹치면서 외양상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류수열 교수



설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 언문 소설은 무엇인가요?

언문 소설이란 언문 즉, 한글을 사용하여 창작한 소설을 말해요. 15세기 세종 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반포한 후, 한글 사용을 활발히 하기 위해 기존 한문 서적을 한글로 바꾸어 쓴 책을 냈어요. 이러한 책은 사대부 집안 여성과 평민층을 독서라는 활동으로 끌어들이고, 점차 소설 등 한글 문학의 탄생으로 확대되었어요. 그중에서도 언문 소설은 한글로 기록되어 한자가 익숙하지 않은 여성이나 평민을 중심으로 유행했고, 조선 시대 후반 문학이 발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 혼인을 전적으로 부모들이 결정했나요?

조선 시대에 혼인은 대개 부모와 집안 어른들이 결정했어요. 혼인은 개인과 개인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맺어진다는 생각이 더 컸지요. 따라서 혼인 당사자의 의사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결정에 거의 참견할 수 없었어요. 혼인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가문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 어떤 옷에 자수를 놓았나요?

조선 시대 왕과 왕비의 옷에는 용과 구름을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천을 가슴, 등, 어깨에 붙였어요. 조정에서 나가는 신하들이 입는 관복에는 가슴과 등에 사각형의 장식인 흉배가 있었는데, 여기에 문관은 새 문양, 무관은 네발 동물 문양으로 수를 놓아 장식했지요. 그러나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옷이나 생활용품에 수놓기를 금지했어요. 그러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왕실의 전유물이었던 자수품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퍼졌다고 해요.



▲ 조선 시대 무관의 쌍호흉배

❁ 종이를 파는 가게가 따로 있었나요?

지전은 여러 가지 종류의 종이 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던 가게예요. 조선 시대에 종이는 만들기도, 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몹시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종이를 파는 가게 또한 많지 않았고 따로 정해져 있었지요.

한양에는 종이를 비롯하여 몇 가지 귀한 물건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었는데, 이를 ‘육의전’이라고 했어요. 육의전에는 종이를 파는 ‘지전’, 무명을 파는 ‘면포전’, 생선을 파는 ‘어물전’ 등이 있었어요. 이들 가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상품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설쌤과 함께 생각을 나눠 봐요!

Q 시백이 허물을 벗은 박씨에게 사과를 할 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중요한 것은 외모 보다는 내면이에요. 시백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박씨 앞에서 용기 내어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해요. 그리고 박씨가 준 연적 덕분에 과거에서 장원 급제할 수 있었으니, 이에 대한 고마움 또한 진심으로 전해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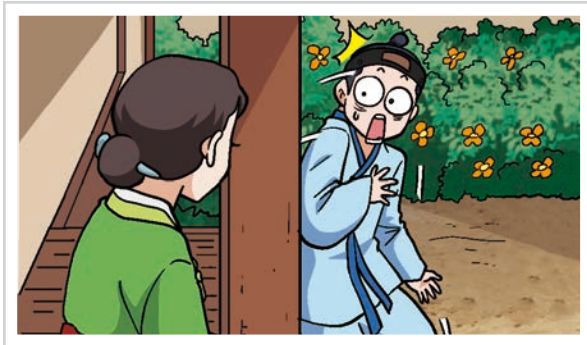


Q 왜 소설 속에서 실제 역사와는 다르게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병자호란은 조선이 크게 패한 데다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받은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소설에서는 뛰어난 재주를 지닌 여인, 박씨가 청나라 장군 용골대를 죽이고, 용골대를 자기 앞에 무릎 꿇리지요. 이러한 장면을 통해 소설의 독자들은 울분을 잠시나마 잊고 아픈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 외모만을 가지고 박씨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시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호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 보세요!



사람은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가치관, 능력 등 다양한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해.

박씨는 허물을 벗기 전에도 하룻밤 사이에 옷을 똑딱 만들거나 불품없는 말을 준마로 만드는 능력을 보였어. 즉, 외모와 상관없이 내면은 늘 재주를 가진 훌륭한 인물이었던 거지. 시백에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이야.



.....

.....

.....

쑥쑥 들어오는 어휘력 노트

삼척동자도 다 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P.26

언문 예전에 ‘한글’을 이르던 말이에요. P.35

어깃장을 놓다 일부러 반항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P.53

피화당 온갖 화를 피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P.59

천대 업신여겨 천하게 대우하거나 푸대접하는 것을 말해요. P.60

연적 벼루에 먹을 갈 때 필요한 물을 담아 두는 그릇을 말해요. P.62

불세출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할 만큼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P.73

액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을 말해요.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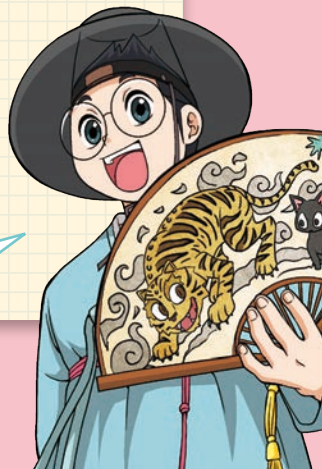
절세가인 세상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을 말해요. P.78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감사로써 은혜에 보답해야 할 자리에 도리어 해를 끼침을 이르는 말이에요. P.94

옥화선 옥을 깎아 만든 불 부채를 말해요. P.128

아수라장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을 말해요. P.129

잘 읽고 이어지는
문해력 퀴즈에
도전해 보세요!



읽고 푸는 문해력 퀴즈

- 1 글을 읽고 알맞은 단어에 ○ 해 보세요.

“딸아, 이제 (허물 / 가면)을 벗을 때가 왔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 2 박씨가 부린 재주가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

- ① 하룻밤 만에 관복을 새로 지었다.
- ② 볼품없는 말을 사다 천리마를 낳게 했다.
- ③ 시백에게 연적을 주어 장원 급제하게 했다.

- 3 <박씨전>을 읽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맞춰 보세요. ()

- ㉠ 박씨가 허물을 벗고 절세가인으로 변해요.
- ㉡ 박씨가 용울대를 죽이고 용골대를 혼내 주어요.
- ㉢ 박씨와 시백이 혼인하나, 못생긴 외모 때문에 구박받아요.
- ㉣ 박씨가 하룻밤 사이에 관복을 짓는 등 재주를 보여요.

① ㉠—㉢—㉣—㉡

② ㉡—㉠—㉢—㉣

③ ㉢—㉣—㉠—㉡

④ ㉢—㉣—㉡—㉠

4 <박씨전>에 등장하는 소재의 알맞은 의미를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 | | | |
|-------|---|-------------------|
| ① 옥화선 | ● | ● ㉠ 온갖 화를 피하는 집 |
| ② 피화당 | ● | ● ㉡ 옥을 깎아 만든 불 부채 |

5 <박씨전>의 내용으로 맞으면 ○, 틀리면 × 해 보세요.

- ① 시백은 외모는 추하지만 내면은 아름다운 박씨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
- ② 허물을 벗은 박씨는 박 처사를 따라 금강산으로 떠났습니다. ()
- ③ 용골대는 박씨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

6 <박씨전> 등장인물의 대화를 읽고 이야기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

- ① 득춘: 사람의 덕과 됴됨이가 외모보다 더 중요한 법이다!
- ② 시백: 저도 눈이 있는데 저 추한 꼴을 보며 어찌 살란 말씀이십니까?
- ③ 박처사: 우리 딸이 허물을 벗을 방법은 진정한 사랑뿐이요.

7 글을 읽고 뜻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세상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8 글을 읽고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을 찾아보세요. ()

기흥대: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박씨: 우리 조선이 너희를 도와 오랑캐를 무찔러 주기까지
하였거늘!

- ① 불 보듯 뻔하다.
- ② 꼬리가 길면 밟힌다.
- ③ 앓던 이 빠진 것 같다.
- ④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한 장으로 정리하는 독서 일기



미호의 독서 일기

1. 못생긴 얼굴 하나 때문에 온갖 굴욕과 천대를 견뎌야 했던 박씨가 불쌍하다.
2. 부인의 얼굴이 예뻐졌다는 이유만으로 태도가 돌변한 시백은 반성해야만 한다.
3. 성별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설쌤의 독서 일기

1. 박씨는 못생겼을 때나, 허물을 벗고 미인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겉모습이나 타인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단단한 내면이다.
2. 전쟁이라는 큰 난관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재주와 용기를 발휘한 박씨처럼, 어려움이 닥쳐와도 굴하지 않고 헤쳐 나가는 태도를 갖자.



_____의 독서 일기



🌸 재밌었던 장면, 베스트 3

[illegible]

🌸 인상 깊은 문장이나 대사, 베스트 3

[illegible]

정답 및 해설

1 정답 허물

2 정답 ②

3 정답 ③

해설 박씨와 시백이 혼인하나, 못생긴 외모 때문에 구박받아요.(㉠) 박씨가 하루밤 만에 관복을 짓는 등 재주를 보여요.(㉡) 박씨가 허물을 벗고 절세가인으로 변해요. (㉢) 박씨가 용울대를 죽이고 용골대를 혼내 주어요.(㉣)

4 정답 ① - ㉣, ② - ㉢

5 정답 ① - X, ② - X, ③ - O

해설 ① 시백은 외모가 추하다는 이유로 박씨를 멀리했어요. ② 허물을 벗은 박씨는 시부모님과 시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6 정답 ③

해설 박씨가 허물을 벗은 것은 진정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액운이 다하였기 때문이에요.

7 정답 절세가인

해설 '세상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을 '절세가인'이라고 해요.

8 정답 ④

해설 감사로써 은혜에 보답해야 할 자리에 도리어 해를 끼침을 이르는 말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예요.